

광주 FC, 참패 딛고 무패 역사 다시 쓴다

K리그 2 내일 홈에서 수원전
코치진-선수들 공·수 단점 보완
경기장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

시즌 첫 패배라는 쓴 보약을 마신 광주FC가 수원 FC를 상대로 새로운 무패행진을 시작한다.

광주는 27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FC와 2019K리그2 2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잘 달려오던 광주의 질주가 앞선 안양 원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7경기 연속 필드 무실점, 19경기 연속 무패 및 6연승을 기록했던 광주는 안양에 7-1 대패를 당했다. 경기 초반부터 펠리페가 경고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른 실점을 하면서 급격히 흔들

렸다. 또 승격을 향한 도전을 하느라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았고 체력 부담도 컸다. 광주는 부담을 털어내고 초심으로 다시 시작했다. 앞선 패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재 준비의 기회를 얻었다. 박진섭 감독은 "패배는 아쉽지만 우리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경기여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설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미팅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회식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분위기도 살렸다. 광주는 최진방 펠리페를 필두로 한 미드필드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19라운드까지 8실점을 기록한 잔물수비 등 K리그2 최다무패 신기록을 기록한 내공을 보여줘야 한다. 한편 광주는 이번 홈경기를 통해 '경기장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책임활동 이행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이다. 광주는 행사(남문광장, 하프타임)에 참여하는 관람객과 방문객, 본부석 측 매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관람객(1인 1개)에게 100%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다회용컵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키워드는 '에이스 노련함과 외인들의 힘'



오늘부터 하반기 일정 돌입
KIA, 두산·SK와 원정 6연전
양현종, 린드블럼과 에이스 대결
최근 상승세 터커·윌랜드 활약 기대

하반기를 시작하는 KIA 타이거즈에 맞는 구석이 있다. 에이스의 '노련함'과 외국인 선수의 '힘'이다. KIA는 26일 두산베어스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잠실에서 주말을 보내는 KIA는 다음 주중에는 6.5경기 차 1위 독주 중인 SK와이언스의 안방으로 가서 원정 6연전을 치른다. 시작부터 '강적' 들을 만난다. 하지만 처참했던 전반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시작과 함께 승률 쌓기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첫 승은 이

스 양현종이 책임진다. 양현종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롯데전에 선발로 나와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이 경기 전까지 개인 9연승을 달리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다. 홈런 부족 등으로 초반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한번 페이스가 오르면 뒤에는 '양현종은 양현종이다'를 입증하면서 팀에 승리를 선물해줬다. 연패의 순간에는 양현종이 등장해 팀을 구해냈다. '하던 대로' 하반기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양현종은 26일 두산 린드블럼을 상대로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20경기에 나와 2.01의 평균자책점으로 15승을 수확, 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의 에이스다. 린드블럼은 승률(0.938)과 탈삼진(126개) 부문에서도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터커는 '힘'으로 양현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올 시즌 KIA 타선의 고민은 장타 실종이다. 14개의 홈런을 날린 최형우가 KIA의 유일한 두자릿수 홈런 주인공이다. 그 뒤로 나지완(6개), 터커(5개), 이창진(4개)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우성은 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지만, KIA 이적 후 기록한 홈런은 3개다.

흐름을 바꿔 줄 장타가 필요하지만 토종 타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트레이드 이후 장타 실력을 뽐내며 KIA의 우타 거포 갈등을 풀어준 이우성이 지난 18일 우측 종아리에 사구를 맞으면서 재활군이 됐다. 26일부터 기술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원정길에는 함께 하지 못한다. '주장' 안치홍도 슬라이딩 도중 다친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 타격할 때 통증이 있는 만큼 안치홍의 타격에도 변수가 있다. KIA는 적을 끝낸 터커의 '힘'을 기대하고 있다. 터커는 7월 13경기에서 48타수 18안타(3홈런) 타율 0.375와 함께 7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경기가 비로 노계임이 선언되면서 정식 기록이 되지지는 못했지만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터커는 두산과의 첫 만남에서도 좋은 기억을 남겼다. 터커는 6월 4일 두산전을 통해 KBO리그 첫 3안타 경기를 했다. 두산전 3경기에서 5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이 중 2루타가 3개다. 볼넷은 4개를 골라내는 등 두산에 0.556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덕꾸러기 신세였던 윌랜드도 김민식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상승세를 타는 등 힘 붙은 외국인 선수들도 KIA가 기대하는 하반기 전력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스필드에 물놀이 가자!

KIA, 내달 3~9일 핫 서머 페스티벌...미니 수영장·미끄럼틀 등 설치

챔피언스필드가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KIA 타이거즈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6경기에서 '2019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Hot summer festival)을 연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야구장 물놀이 축제를 열었던 KIA는 올 시즌에도 챔피언스필드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미니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을 설치한다. 미니 수영장은 가로 12m 세로 6m 규모이며, 물 미끄럼틀은 높이 4m, 길이 8m 크기다. 우측 외야 샌드파크에는 야자수와 산베드, 네온사인 포토존이 갖춰진 '바캉스존'이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오후 8시 30분(주말 경기 8시)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유치원생-초등학생) 뿐만 이용할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30명,25분,1회' 방식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과 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진행요원이 배치된다. 3~4일 NC전에서는 시원한 물대포쇼도 펼쳐진다. KIA는 3루측 내야 응원석에 4대의 워터캐논을 설치해 득점과 안타가 나오면 순간마다 20m 높이의 시원한 물대포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또 8월 8일 한화전에서 중양출입구 앞에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와 셀토스가 전시되며,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 모델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 이벤트가 마련된다. 더불어 핫 서머 페스티벌 기간 K9석, K7석, K5석, 외야석에 대해 3000원 할인이 적용(성인 및 청소년 한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1승 더하면 한미 통산 150승

내일 워싱턴 원정, 시즌 12승 도전

'코리아인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한미 통산 150승에 도전한다. 25일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류현진은 27일 오전 8시 5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워싱턴과의 방문 경기에서 시즌 20번째 선발 등판한다. 20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제물로 시즌 11승(2패)째를 따낸 류현진은 옛새간의 흥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지에서 워싱턴을 상대한다. 류현진의 올 시즌 워싱턴 등판은 두 번째다. 그는 5월 13일 워싱턴과의 홈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역투로 시즌 5승째를 따낸 바 있다. 역대 워싱턴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의 워싱턴전 통산 성적은 4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1.35다. 애초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다투는 워싱턴의 에이스 맥스 셔저(35)와 어깨 대결이 펼쳐질 수 있었다. 하지만 셔저가 등 통증에 이어 우측 견갑후부 점액낭염 진단

단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진 탓에 둘의 선발 대결은 무산됐다. 대신 우완 베테랑 투수 아니발 산체스가 류현진과 선발 격돌한다. 셔저와의 사이영상 맞대결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워싱턴전은 류현진의 한미 통산 150승이 걸려 있어 주목된다. 2006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와 동시에 최초로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휩쓸이하며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류현진은 KBO 리그에서 7년간 98승 52패, 평균자책점 2.80을 기록했다. 2013년 미국에 진출한 류현진은 올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51승 30패 평균자책점 2.94를 수확했다. 한국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도합 149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이제 1승만 더하면 한미 통산 150승 이정표를 세운다. 한미 통산 150승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했다.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최다인 124승을 수확한 뒤 2012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5승을 더한 미 통산 129승을 쌓은 것이 최다 기록이다. 한미 통산 150승에 도전하는 류현진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안에 김병현(54승)의 메이저리그 승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